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맑고 아름다운
2010. 8
통권 206호
사람들

2010학년도 하반기

법왕불교대학기초(주야간) · 경전 · 참선반 신입생 모집

기초반

1. 교육안내

교육과정 | 1학년 2학기제

교육내용

1학기 - 불교입문, 불교사의 이해

2학기 - 예불문과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 특전 | 조계종 종단에서 실시 하는 포교사
고시 응시자격 부여(졸업생에 한함),
매학기 성적우수 및 수행봉사 관련
포상

※ 졸업필수조건 | 출석 80% 이상(매 학기)

2. 강의시간

3기 신입생 | 주간: 금요일 오후 2시

야간: 금요일 오후 7시

2기 편입생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 입시요강

응시자격 | 조계종 사찰에서 실시하는 기본
교육 이수자 및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대학 소정양식) 1부
기본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조계종 신도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대학등록금 | 입학금 3만원(교재비 포함)

할인대상(대학·경전반 동일)

- 가족할인
- 국가유공자
- 장애인(3급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고령자(65세이상 · 1946년 이전 출생자)
- 재입학자(포교원 인가 불교대학 졸업자)

경전반

경전반은 6개월간의 공부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불법의 진수와 심오한 경전의 세계를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1기 수료생은 물론 법우님 모두 경전반에 등록하시어 쉽없이 공부하는 불자로서의 자세를 다져나가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 | 신심명

강의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응시자격 | 조계종사찰 신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조계종 신도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참선반

기초교리를 이수하셨거나 참선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신도님은 불교의 핵심공부인 참선공부에 동참하시어 마음자리를 닦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 9시(2시간)

선 원 장 | 무상스님

접수기간 | 수시모집 중

접수방법 | 법왕사 종무소 방문접수

문의: T. 766-3747, 766-3742

www.bubwangsa.or.kr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www.bubwangsa.or.kr

2010. 8
통권 206호



Contents

04 깨침의 향기

조계종 대종사 정무 큰스님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
본원스님

16 생활속의 기도법

불교는 '나'를 찾는 일에서부터

18 알아봅시다

사천왕상

22 웰빙푸드

매실차
매실 장아찌

24 만화 불교이야기

송나라에 떨어진 명성, 의천 2

26 법왕사 소식

28 법왕사 게시판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더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통권 206호 불기 2554(2010)년 8월 5일 발행

발행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잠 1길 2-9번지

종무소 T.(053) 766-3747 · 9088 F.(053) 767-6095 기 획 회주 · 정무스님 발행인 실상스님 편집위원장 원인스님
편집위원 영일, 묘도, 정명, 무상, 지안 취재기자 박학순 디자인 전윤미 기획 · 제작 도서출판 풍경소리 (053) 424-0144

조계종 대종사 정무 큰스님



“아이들은 사랑과 감동을 먹고 자란다”

요즘 문제가 많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가 느는 것은 부모 자격을 갖지 못한 이들이 아이를 낳고 제멋대로 기르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신도 불안하고 우왕좌왕하는데 지식인들 편안하게 잘 기를 수 있겠습니까? 마음공부를 통한 안심입명은 세상살이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 부모의 기본적인 안정감이 자녀에게 안정된 기반을 제공하여 아이를 편안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

다. 이럴 때 부모는 자녀의 확실한 의지처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와 보살피는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쌍방향의 감성전달 체계가 아이의 생명줄이 됩니다. 아이는 눈 맞춤과 미소, 울음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교감이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고, 지적 발달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때 무관심하여 반응하지 않으면 아이는 비참한 상태가 되고 자주 아픕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이가 자주 아프다면 그 원인을 잘 살펴야 합니다. 어른도 그렇지만 아이들의 경우 심리적인 이유로 아픈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사랑과 감동을 먹고 자랍니다. 똑같은 환경, 즉 음식과 의복, 침구 등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았더라도 영아원,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신체발달도 늦고 뇌 발달도 늦고 잔병치레도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Children Grow Eating Love and Deep Emotion

These days we can see many problem children and an increase in crimes against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I think that it is because unqualified parents give birth to children and raise them without discrimination. If parents themselves are unstable and confused, how can they raise their children comfortably? Spiritual peace and enlightenment through the study of the mind is essential not only to the worldly life but also to the education of children.

The fundamental stability of parents provides their children with stable foundation and helps them grow comfortably and brightly. In this case, parents are the firm recourse for their children to rely on. The interactive emotion transmission system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becomes a lifeline for the children. Children express their mind through the eye contact, smile and crying. These basic interactions of emotion become the basis of smooth social life and help the intellectual development of the children. During this period, if parents are indifferent and show no emotional response children are likely to feel miserable and get sick frequently. If children get sick frequently without any reason, parents should look into the cause of the disease. As is often the case for the adults, children can get sick for their psychological reasons.

Children grow eating love and deep emotion. According to a statistics, even if they were furnished with the same circumstances as food, clothes, bed and the like, children who were brought up at homes for infants or orphanages show retarded physical and brain development and get sick more frequently. Why is it so? It's because of lack of love. In other words, it is because there are no parents who can respond with applause, love and emotion whenever children make gestures with their hands and feet. Children learn by watching the responses of the adults. If they are encouraged to do something, they try to do it better, and if they are firmly told not to do something they know it is wrong.

The younger the babies are, the more the parents and the family should provide

아이들이 손짓, 발짓을 할 때마다 함께 박수를 쳐 주고, 감동하고, 사랑해 주는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반응을 보고 배웁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잘한다고 격려해 주면 그 행동을 잘 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해야 옳지 않은 일인지 압니다.

갓난아이일수록 부모와 가족이 감미로운 안정감을 제공해야 합니다. 안정감이 충족되었을 때 뇌는 사랑받는 즐거움 말고도 신경전달 물질인 옥시토신을 분비한답니다. 어릴 때부터 안정된 분위기에서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훗날 우정과 낭만적 친밀감 등이 동일한 회로를 활성화하여 밝고 사랑스러운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고 강요하면서 거리를 두면 아이는 입을 다물고 불안 공포감이 생기며 자라서도 부모와 친밀감이 없습니다. 또한 불안하고 정신없는 어머니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맞추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또한 아이를 세심하게 보살피 주지 않으면 나중에 집착하는 식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는 다른 이와 의 파장을 맞추기가 어려워 성인이 되어서도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내가 아는 정신과 의사가 상담한 사례에 의하면, 20대 젊은 남자 환자가 있었는데, 의처증이 심하고, 아내에게 너무나 집착한다고 합니다. 독점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버림받는 느낌이 올라온다는 환자의 병인(病因)은 어릴 때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사망한 환자의 어머니는 환자가 아주 어릴 때부터 깊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 갖든 보살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늘 허전하고 때론 버림받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이 잠재의식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또한 어릴 때 부모 사랑을 받지 않고,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은 피해의식이 많고, 남을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불행감이 그 사람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에도 익숙하지 않아 행복을 누릴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행복이 자기에게 찾아와도 받을 줄 모르고 멀리하는 게 습관화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업이, 습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습관은 어릴 때부터 길러야 합니다.

them with the sense of stability. It is said that when the sense of stability is fulfilled, we feel more pleasure of being loved and brain secretes a neurotransmitter, oxytocin. Children who are brought up with love at a stable atmosphere from early childhood can grow up to be bright and lovable adults because friendship and romantic intimacy will activate the same circuit later.

On the other hand, if mother is indifferent or keeps distance by ignoring and forcing the child, he doesn't open his mind, and fear and worry develop in him. When he grows up, he doesn't feel any intimacy with his parents. Thus if mother is unstable and indiscreet, she cannot be a reliable person for the child because she cannot satisfy what the child needs. If the mother doesn't take care of the child prudently, he may respond in a way that he clings to something. In most cases, these children will not keep well-rounded human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when they grow up.

Actually, according to a psychiatrist whom I know well, a young male patient, who was in his twenties, had a severe delusional jealousy of his wife because he was too attached to his wife. If he doesn't monopolize his wife, he feels uneasy and deserted. The cause of the patient's disease was lack of his mother's love when he was a child. He lost his mother when he attended the elementary school. Since that time he hasn't received any care and love from his mother. He always felt empty and sometimes abandoned. That feeling remained in his subconscious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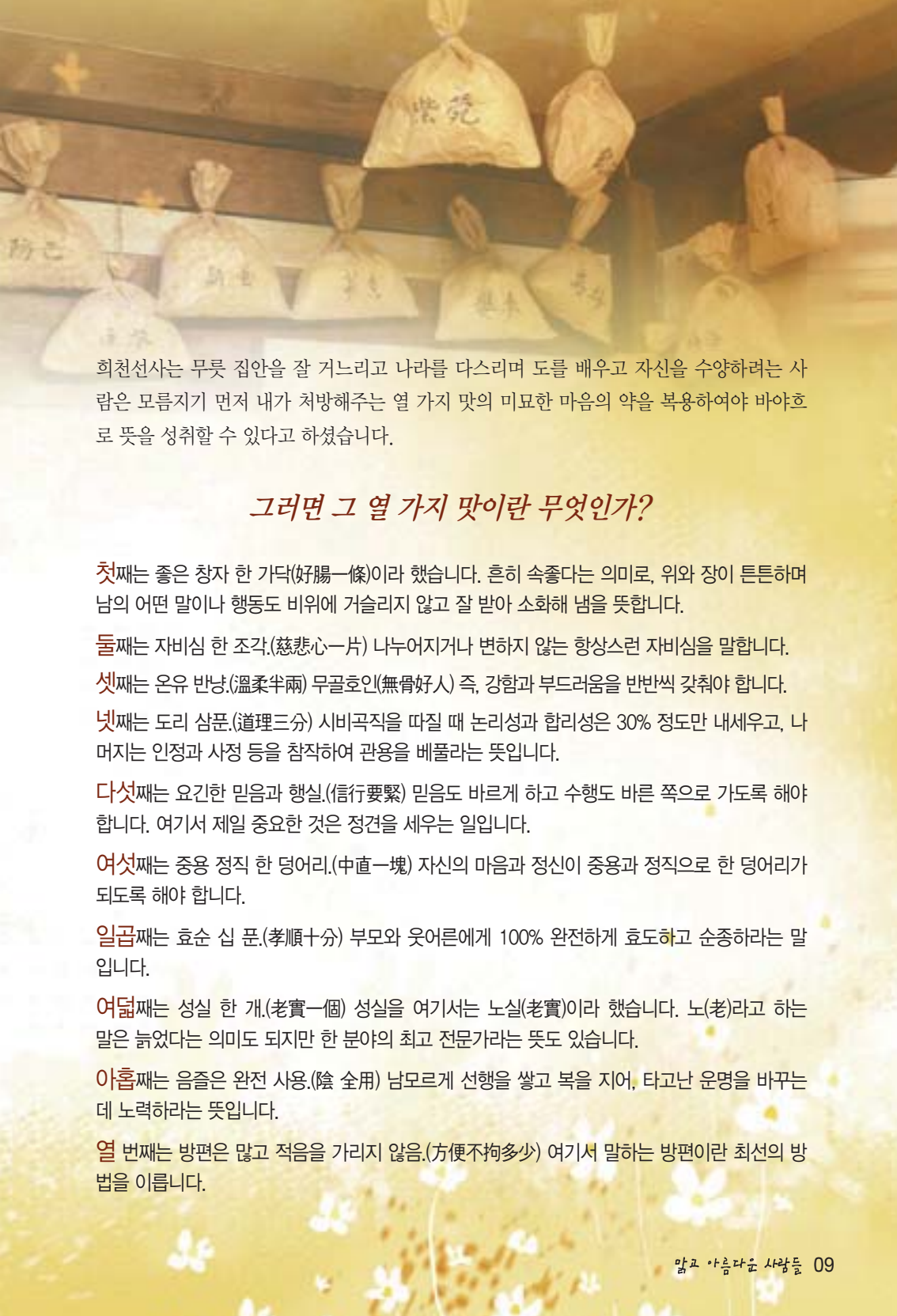
It is also said that people who didn't receive enough love and care from their parents in their childhood tend to be stricken with a victim mentality and don't believe other people. Since they didn't receive love, they don't know how to love other people. Since they were surrounded with the sense of unhappiness in their childhood, they don't know how to enjoy happiness even if they are faced with happy circumstances. It became their habits to keep away from happiness, not to receive it when it comes to them. Therefore, people say that karma or habit is fearful. The habit of being happy should be developed from early childhood.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



“마음의 약처방”

이제 바야흐로 여름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무더위로 유명한 이곳 대구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매일 30도를 웃도는 날씨에 지치고 기운이 없고.. 게다가 비도 오락가락해서 습도까지 높아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지금 우리 법왕사 가족들은 어떻게 더위를 이기고 있습니까? 휴가철이라 시원한 휴양지로 피서를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원한 에어컨 앞에서 여름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약으로 여름 한철 나고자 하십니까? 더운 여름날씨에 보약이 필요한것 같아서 대만의 성운스님의 수상록 중 “석두 희천” 선사님의 [마음의 약처방]에 나오는 탕약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 하고자 합니다.



희천선사는 무릇 집안을 잘 거느리고 나라를 다스리며 도를 배우고 자신을 수양하려는 사람은 모름지기 먼저 내가 처방해주는 열 가지 맛의 미묘한 마음의 약을 복용하여야 바야흐로 뜻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열 가지 맛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좋은 창자 한 가닥(好腸一條)이라 했습니다. 흔히 속 좋다는 의미로, 위와 장이 튼튼하며 남의 어떤 말이나 행동도 비위에 거슬리지 않고 잘 받아 소화해 냄을 뜻합니다.

둘째는 자비심 한 조각(慈悲心一片) 나누어지거나 변하지 않는 항상스런 자비심을 말합니다.

셋째는 온유 반량(溫柔半兩) 무골호인(無骨好人) 즉, 강함과 부드러움을 반반씩 갖춰야 합니다.

넷째는 도리 삼분(道理三分) 시비곡직을 따질 때 논리성과 합리성은 30% 정도만 내세우고, 나머지는 인정과 사정 등을 참작하여 관용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다섯째는 요긴한 믿음과 행실(信行要緊) 믿음도 바르게 하고 수행도 바른 쪽으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견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섯째는 중용 정직 한 덩어리.(中直一塊) 자신의 마음과 정신이 중용과 정직으로 한 덩어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째는 효순 십 분.(孝順十分) 부모와 웃어른에게 100% 완전하게 효도하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여덟째는 성실 한 개.(老實一個) 성실을 여기서는 노실(老實)이라 했습니다. 노(老)라고 하는 말은 늙었다는 의미도 되지만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홉째는 음침은 완전 사용.(陰 全用) 남모르게 선행을 쌓고 복을 지어, 타고난 운명을 바꾸는데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열 번째는 방편은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음.(方便不拘多少) 여기서 말하는 방편이란 최선의 방법을 이릅니다.



이 약은 마음(속)이 넓은 냄비 안에 넣어 볶되, 늘도록 태우지도 말고 조급하게 다루지도 말며, 불기운을 삼 쉼(30%) 정도 제거한 (식힌) 뒤 평등 사발 안에 넣어 뿜는다고 말합니다. 세 번 생 각함의 가루로 뿜아 육바라밀의 알로

조제하되, 보리수 열매만한 크기로 만듭니다. 이 알약을 하루 세 번 복용하는데, 시간은 어느 때고 상관없으나, 화기에애한 국물로 마셔 삼켜야 하며, 정말 이와 같이 복용하기만 한다면, 치유되지 않을 질병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을 복용할 때는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공덕이 안 나타나는 경우, 영험이 안 나타나는 경우는 모두 금기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보시면 틀림 없습니다.

첫째, 말로는 청정하데 행실은 혼탁하게 하는 짓.(言清行濁)

둘째는 자기를 이롭게 하며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짓.(利己損人)

셋째는 은밀한 가운데 화살을 겨누는 짓.(暗中) 감언이설로 형제처럼 가족처럼 친해졌을 때 배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는 뱃속에 독을 품는 짓.(中毒) 겉으로는 좋으면서도 항상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웃음 속에 서슬 퍼런 칼을 꽂는 짓.(笑裏刀) 웃으면서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아주 싸늘한 미소, 냉정한 미소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여섯째는 대가리 둘 달린 뱀 같은 짓.(兩頭蛇)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며 이간질하는 몸살 행동을 뜻합니다.

일곱째는 고요하고 평안한 곳에 갑자기 바람과 물결을 일으키는 짓.(平地起風波) 이렇게 정답게 차 마시면서 이야기 하는데 누구 한 사람이 들어와서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설친다면 분위기가 삭막해져서 흩어져 버리잖아요. 남 잘 되는 것 배 아파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 일곱 가지는 모름지기 한 시 바빠 금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계송으로 이르면 이와 같습니다.

비방절묘합천기 比方絕妙合天機

불용노사편작의 不用盧師扁鵲醫

보권선남병신녀 普勸善男竝信女

급수대치막호의 急須對治莫狐疑

이와 같은 처방은 절묘하게 천기에 부합하니, 노사나 편작 같은 신의도 쓸 필요 없네. 착한 남자와 신심 있는 여자한테 두루 권하오니, 조금도 의심 말고 한 시 바빠 먹어 치료할 지어 다라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식들께서 만병의 근원은 마음에서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속이 비어 있는 큰 통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쓰레기를 채우면 쓰레기통이 될 것이며, 향수를 채우면 향수통이 될 것입니다.

흔히들 ‘법등명 자등명’이라 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등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면서 내 마음속의 빈통을 채워간다면 내가 성불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은 ‘자등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난히 더워질 것이라는 이번 여름 우리 법왕사 가족들도 처방전대로 보약을 드시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이 처방전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므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처님으로서 사는데 꼭 필요한 보약이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드시길 바랍니다.

본원 스님

- 토굴 정진중

무고한 불교 음해성 차별정책은 곧 망국의 길이다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성공한 이들은 두고, 하바드대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공의 요인으로 두뇌, 학력, 기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15%에 그치는 반면, 인화를 바탕으로 친밀도가 높은 원만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인의 85%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도 똑같이 적용 가능한 일인지 흥미로운 일이다. 왜냐하면 원칙이 무시되고 상식이 안통하며 기초·기본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풍토에서는 인화(人和)를 덕목으로 정도(正道)를 행하는 사람이 도리어 설자릴 잃고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왕조체제도 아닌 시절임에도, 통치자의 태생과 기분에 따라 극심해지는 ‘인사편중’이 적어도 그 간의 우리네 정치수준이며 풍도였었다. 박정권에서부터 잇단 군정, 전·노씨에 이르는 30년 세월은 대부분 TK(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요직을 독차지하다시피

했고, 그러다가 YS가 집권하자마자 자신이 기독교 장로임을 내세워, 민주정부는 말뿐, 반민주적 종교차별 인사정책을 펴면서 당시, 관료 중에 불교인은 원치 않은 인사이동과 승진에서 배제되는 등 노골적으로 불이익 내지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자신의 종교가 불교임을 숨길 수 밖에 없는 기막히던 상황이던 그 시기인 97년 8월에 실린 한 <불교신문> 통계 현황을 보면, 가혹한 조선왕조 억불정책이 재현한 듯한 극심한 배불(排佛)이, 유학을 대신한 기독교의 물지각한 권력 상층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저질러졌음이 드러나면서 두고두고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당시 장·차관을 비롯한 3급이상 고위직 64%가 기독교인인 반면 불교인은 고작 4%에 지나지 않았으며, 법조계는 주요 부장 판·검사로 기독교인이 68%였고 불교인은 12%에 머물렀으며, 육·해·공군 장성급 85%가 기독교인에 비해 불

교인은 5.2%에 그쳤고, 그리고 군부대 내 종교시설의 경우 교회 수는 전체 시설물 70%를 넘은 반면 군법당 수는 18%에 그칠 만큼 정계든 학계든 재계든 국가통수권자의 입김이 미치는 곳은 어디고 가리질 않고 기독교적 색채와 분위기로 도배를 하면서, 심지어는 불교의 꽃이라는 이유를 들어 옛 고궁이나 기념관에 심어진 연꽃마저 뿌리째 뽑아버리는 해괴한 일들이 청와대의 지시로 이루어졌음이 밝혀진 것은 훗날에 일이다.

불교와 불교인을 알보는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민족종교인 불교를 예우하고 믿고 상징하는 차원에서, 육영수여사 시절, 청와대 한켠에 모셔진 불상을 우상이라며 내다버렸음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소문이 파다하게 나도는 데도, 관련자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면서 발뺌 했고, 이런 저런 일로 민심이 뒤숭숭한 가운데 잇따라 일어난 하늘과 땅이며 바다에서 입체적으로 터진 사고는 우리 역사 이래 최악의 사고다발로 기록되며 이는 YS집권 기간(94~98)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그때의 대형참사 몇 가지를 기억해 보더라도 사고원인은 무도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였다는 점이 시사하는바, 치자(治者)의 부덕함이 클수록 손댈 수조차 없는 국정의 난맥상으로 이어지며, 국가를 엄청난 위기상황으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서해안 ‘격포 여객선 사고’는 태풍해제도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항



하다 침몰하면서 해난사고 최대의 희생자(400여명)을 낳았으며, 부산 ‘구포역 열차전복사고’는 공사업체가 철로 밑 약한 지반을 안전시설 하나 없이 작업하다 일어난 참사였으며, ‘성수대교’ 상판이 내려앉으며 출근길 버스에 차들이 한강에 추락한 것은 다리건설공정을 서두른 부실공사가 원인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대구상인동 가스관 폭발’로 무수한 어린 학생들이 채 피지도 못하고서 가버린 재앙 역시 지하철 시공업체의 방만한, 안전관리 부실 때문이었으며, 동체가 동강나며 많은 희생자를 냈던 ‘목포 여객기 추락사고’는 관제탑 기상악화 주의를 무시하며 항로를 이탈한 기장의 실수로 드러났고, 서울 상류층이 드나드는 고급백화점 ‘삼풍 붕괴’는 건물옥상에 놓인 무거운 시설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해 통째로 무너져 내리면서, 정부수립 이후 단일

사고로는 최대의 희생자(500여명)를 냈을 뿐 아니라, 삼풍붕괴는 세계인의 눈과 귀를 모으는 미증유의 인재가 빚은 대참사로서, 우리국민에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긴 사고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YS정권은 5·6공이 저지른 고질적 병폐인 추악한 친·인척 비리에 또 다시 연루된 데다, 끝내는 집권 말기 국민들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고통과 좌절의 아픔을 안겨준 IMF를 맞으면서, 마치 난파선이 좌초 되듯이 사태 수습할 능력이라곤 전무한 상태로 참담한 몰락을 맞이한 데는 필연적인 까닭이 있으려니와, 그것은 위에서 지적한 대로, 한때의 권세를 믿고 경거망동하는 지배계층에서 흔히 그러하듯이, 질편한 욕락에 젖어 사는 범부로서 민족종교인 불교를 함부로 무시하고 알보는 거짓과 차별을 일삼은 방만한 국정운영과 자만에 의한 준엄한 인과의 필연





적 결과다.
YS정권의 편벽된 불교멸시 정책과 그의
책임 시, 잇단 대형 참사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이한 일과는 과연 상호 인과(因
果)적 관계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사실 이
보다 더한 아둔하고 우매한 물음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정실패와 경제파탄
으로 말미암아 서민 모두가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맞으며, 일자릴 잃고 빚더미에
앉아, 더러는 가정마저 파탄되면서 목숨
을 끊는 등 혹독한 고통 분담을 감수한지
채 10년이 안 되었을뿐더러, 여전히 그
때 충격의 여파로 좀처럼 경제회복이 안
되는 어려운 현실에서, 어찌해서 그런 일
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배경의 진상조차
모른대서야 되겠는가.

인(因)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연(緣)은
간접적인 원인으로써 선 · 악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인과 연의 화합은 인간사 기쁜

고 슬픈 희비(喜悲)를 낳으며, 선 · 악의
과보(果報)로 나타나는 인연 · 인과법은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조화롭게 가져가
는 천지자연신의 법질서임에도 예나 이
제나 안타깝게도 이를 알지 못함은 탐욕
스런 어리석음이 사람의 눈을 가리기 때
문이다.

“지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도 없다”고 한 이는 <<역사란 무엇
인가>>의 명저자 E.H.카이다.

인과(因果)의 개연성(함수관계)은 얇은
지식과 분별지에 물든 인간이 알수있는
영역도, 과학의 영역도 아닌 고준한 수행
을 통한 체득과 체험에 의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참혹한 인과로 얼룩
진 과거 역사의 실재를 두고 논증 할 수
있음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일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일타큰스님께서 들려주시는 생활속의 기도법

불교는 ‘나’를 찾는 일에서부터

‘나’를 유아독존의 ‘나’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다.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라 할 수 있는가? 틀림없이 아닐 것이다. ‘나’에 대한 물음과 ‘아니다’라는 대답. 이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작된다. ‘나’를 찾는 사색과 ‘나’를 찾는 일. 바로 여기에서부터 불교는 시작되는 것이다.

녹야원에서 최초의 다섯 비구를 탄생시킨 석가모니불은 갠지스강 건너에 있는 마가다국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도중에 부처님은 밀림 속으로 들어가 큰 나무 아래에서 좌선을 하고 계셨는데, 마침 이 고장의 상류층 젊은이 서른 명이 그 숲으로 놀러 왔다. 저마다 아내를 데리고 왔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한 젊은이는 기생을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기생이 문제를 일으켰다. 다들 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는 틈을 타, 사람들의 옷가지와 패물 등을 훔쳐 도망쳐 버린 것이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젊은이들은 기생을 찾기 위해 숲속을 뒤졌고, 마침내 부처님께서 좌선을 하고 있는 장소에 이르게 되었다. 그들은 부처님께 여쭙었다.

“화장을 질게 하고 옷가지와 패물을 들고 가는 여자를 보지 못하셨습니까?”

“젊은이들이여, 왜 그 여인을 찾는가?”

젊은이들이 자초지종을 아뢰자 부처님은 그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젊은이들이여, 여자를 찾는 일과 자신을 찾는 일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급한가? 여자를 찾는 일과 자기 자신을 찾는 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부처님의 한마디 말씀은 젊은이들의 깊은 잠을 깨워 놓았다.

“자기를 찾는 일이 더 급하고, 자기를 찾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좋다. 그렇다면 거기들 앉아라.”

젊은이들이 예배를 하고 자리에 앉아 부처님은 참된 자기를 찾는 법과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일러주었고, 설법을 들은 서른 명의 젊은이들은 참된 삶의 길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모두 출가하였다.

나에게 있어 가장 급한 일은 유아독존의 ‘나’를 찾는 일이고,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그러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길 속에 갇힌 ‘나’는 유아독존일 수가 없다. 적어도 가장 소중한 ‘나’라면 영원하고 행복하고 자유자재롭고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 ‘나’이어야 한다.

모든 중생은 그렇게 될 수 있다. 내가 ‘나’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 참된 ‘나’를 되찾을 때 그것은 가능해지고, 유아독존의 ‘나’를 회복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부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이 홀로 가장 높은 ‘나’를 찾기 위해 석가모니는 모진 수행을 하였고, 그 결과 35세의 나이로 부처가 되셨다. 그리고 깨달음의 환희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 기특하도다. 모든 중생이 다 이와 같이 지혜와 덕상을 갖추었건만, 망상에 집착하여 스스로 체득하지 못하는구나. 만일 이 망상의 집착만 여윈다면 바로 일체지, 무사지를 얻게 되는 것을!

부처님은 진아를 찾은 분이다. 그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에나 한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던 ‘나’,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유아독존의 ‘나’를 깨달아 부처가 되신 것이다. 이때에 이르러서야 석가모니는 참으로 자기를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열반의 그날까지 중생들과 함께 하며 참된 ‘나’를 찾는 방법과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다.

〈일타스님 –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사천왕상 - 사찰 문 지키고 사방 수호하는 존재

우리는 절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일주문이다. 그리고 다음 문(통상적으로 천왕문)에 가게 되면 무서운 얼굴을 한 사천왕을 만날 수 있다. 어두운 공간에 왕방울 만한 눈을 부라리며 무기를 든 장수가 발아래에 마귀를 밟고 노려본다. 고통스런 표정의 마귀와 울긋불긋 채색된 무시무시한 장수들을 보면 간담이 서늘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사천왕상은 형상 탓에 무서운 존재로 받아들여진다. 무서운 얼굴을 한 이유는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자리 잡은 죄의식을 불러일으켜 깨우치게 하겠다는 의도일까? 아니며 무서운 형상을 통해서 쌓인 기운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까?



사천왕은 원래 방위신이다. 즉 이들은 불국토(수미산)의 네 방향에 살면서 각각의 영역을 수호하는 수호 신이기도 하다. 수미산은 그 높이가 에베레스트의 17,000배나 되는 곳으로서, 산 정상에는 33개의 성으로 이루어진 천궁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제석(帝釋)과 32천이 산다는 도리천(忉利天)이다. 그리고 그 보다 아래인 중턱의 사방을 사천왕천(四天王天)이라 하는데 그 상공은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 곳이다. 사천왕은 이 수미산 중턱에 살면서 육계육천의 첫 번째 하늘인 사천왕천을 관장하며 불국토를 수호하는 방위 신들이다.

① 동방지국천왕(東方持國天王)

동방지국천왕은 수미산의 동쪽을 지키는 신으로서 범명(凡名)으로는 제르타라스트라라 하며 음역하면 나라를 다스린다는 치국(治國), 백성을 편안케 하는 안민(安民)이기 때문에 곧 지국천왕이라 불린다. 선한 이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이에게는 벌을 주면서 언제나 인간을 고루 보살피고 국토를 수호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한다. 지국천왕의 권속으로는 술과 고기를 일체 먹지 않고 오직 향기만을 맡는 음악의 신 건달바와 사람의 정기만을 뺏는 귀신 비사사를 거느린다.

② 남방증장천왕(南方增長天王)

남방증장천은 수미산의 남쪽에 살면서 염부제(閻浮堤)의 중생을 관찰하고 제도하는 천신이다. 그는 위덕을 증가시켜 만물이 태어날 수 있는 덕을 베풀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하는데 원래 범명은 비루다카이며 음역으로는 비루다(毘留多), 또는 비로다카(毘嚧陀迦) 등으로 쓰고, 한역하여 증장(增長) 또는 증광(增廣)이라 한다. 남방증장천왕의 권속으로는 귀신 구반다와 프레다를 부린다.

③ 서방광목천왕(西方廣目天王)

서방광목천왕은 수미산의 서쪽에 살면서 서방을 지키는 천신이다. 범어로는 비루파카라 부르며 음역하여 비루박차(毘樓博叉)라 한다. 눈을 부릅뜬으로써 나쁜 것을 몰아낸다고 하여 광목(廣目) 또는 악안(惡眼)이라고 하며, 죄인에게 벌을 내려 심한 고통을 느끼게 함으로써 도를 닦아야겠다는 마음을 내게 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광목천왕은 무수한 용과 부다나를 권속으로 한다.

④ 북방다문천왕(北方多聞天王)

북방다문천왕은 수미산 북쪽의 수정타(水精埵)에 살면서 북방을 지키는 신으로서 범어로는 바이사라바나라 하며 의역하여 다문(多聞) 또는 보문(普聞)이라 한다. 그는 항상 부처님의 도량을 지키면서 부처님의 설법을 많이 듣는다 하여 다문(多聞)이라 한다. 검은 몸의 다문천왕은 원래 암흑계의 사물을 관리했는데 부처님께 귀의하여 광명신이 되고 다시 어둠속에서 방황하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북방다문천왕은 권속으로 야차와 나찰을 거느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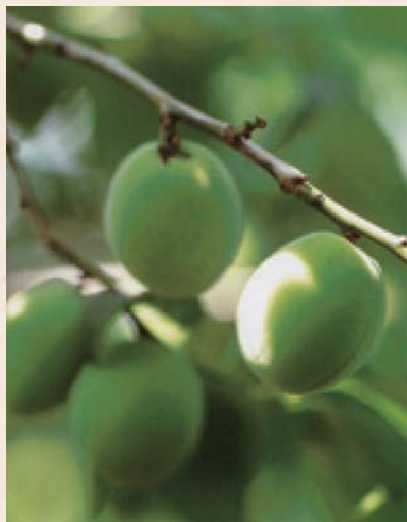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는 사천왕을 보면서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다. 사천왕을 구분할 때는 사천왕의 색깔과 지물을 보고 구분을 하게 되는데 경전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사천왕도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통일신라시대 것과 원·명의 영향을 받은 조선시대 것 사이에는 대승불교 경전과 라마교 경전 상의 엄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석굴암이나 불탑에 새겨진 사천왕 부조와 천왕문 안에 안치된 목조 또는 소조형 천왕들에서 보여 지는 도상 사이에서 보이는 차이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사천왕 조상의 지물은 동방지국천왕이 비파를, 남방증장천왕이 용과 여의주를, 서방광목천왕이 칼을, 북방다문천왕이 당(幢)과 보탑을 들고 있는 것이 거의 일반화 되어 있으며 방위를 의미하는 색상을 띠고 있다. 즉 오방색을 띠고 있는데, 청색(동-지국천왕), 적색(남-증장천왕), 백색(서-다문천왕), 흑색(북-광목천왕)이고 중앙에 계시는 부처님이 황금색을 띠고 계신다.

또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사천왕의 배치부분의 문제이다. 불단이나 불탑의 경우라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되어 있어 원래의 위치에 사천왕을 배치하면 된다. 그런데 천왕문의 경우

는 또 이야기가 다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을 통과하면 정면을 북쪽으로 본다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정면에 다문천왕이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천왕문을 지나는 통로 양쪽으로 두 천왕이 짝지어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정북(正北)~정남(正南)축에 맞춰야하는 사천왕의 십자형 배치는 45도 틀어서 X자형 배치 방식으로 변형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방지국천을 동쪽의 상단(동북방)에 두는가, 아니면 동쪽 하단(동남방)에 두는가에 따라 천왕들의 조합이 달라지게 되는데, 만일 동방지국천을 동쪽 상단에 안치한다면 당연히 대각선 방향인 서쪽하단은 서방광목천이 되는 것이며 자연스럽게 서쪽 상단이 북방다문천, 그리고 그 대각선 방향인 동쪽 하단에는 남방증장천이 오게 되는 것이다.





“더위를 이기는 매실차와 매실 짱아찌”

초여름이면 시장에 풍성하게 등장하는 매실. 매실의 새콤한 맛은 떨어진 입맛을 돋워주는데도 그만일뿐더러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해주기 때문에 특히 늘 피곤한 남편이나 공부에 지친 수험생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기도 하다. 게다가 매실은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칼슘 부족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매실 1백 그램 속에는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칼슘은 12

밀리그램이나 된다. 같은 분량의 포도속에 6밀리그램, 멜론 속에 3밀리그램이 들어 있는 걸 생각하면 비교적 많은 양인 셈이다. 게다가 매실을 먹게 되면 체액이 알칼리성을 띠게 되어 몸속의 산성 노폐물 배출을 위해 칼슘을 써야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칼슘부족을 예방할 수 있다.



선재 스님

선재(善財)스님은 80년 경기도 화성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의 성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여러 선방에서 정진했다. 94년 중앙승가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으며, 졸업논문으로 <사찰음식문화연구>를 발표했다.

이 논문을 통해 그는 경전을 근거로 하여 사찰음식의 특징과 유형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이야기한 바 있다. 그후 그는 생명에 위협을 받을 만큼 심한 간경화를 앓게 되었고, 건강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사찰음식을 선택하게 된다. 95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불교TV <푸른 맛, 푸른요리>를 통해 사찰음식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때부터 보리사로 직접 찾아오고, 전화로 문의하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사찰음식에 대한 상담을 해주게 된다. [선재스님의 사찰음식]은 바로 그의 이런 경험이 바탕이 되어 만들어졌다. 현재 그는 여주 보리사에 머물면서 사찰음식 연수생들을 지도하는 한편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학과 겸임교수이자 선재사찰음식연구원 원장으로 사찰음식을 지도하고 있다.

매 실 차

재료 매실 1kg, 황설탕 1kg, 차조기 200g

- 1 과육이 단단하고 살이 많고, 상처 없는 매실을 골라 물에 재빨리 씻어 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완전히 뺀다.
- 2 끓는 물에 넣어 살짝 데친 후 체에 받쳐 물기를 빼고 포크로 구멍을 송송 뚫는다.
- 3 물기를 깨끗이 닦은 병에 매실, 차조기, 매실과 같은 양의 황설탕 순으로 켜켜이 담고 맨 윗부분에는 설탕을 두껍게 덮어 설탕 마개를 해둔다. 일주일 정도 두면 국물이 가라앉는데 이때 위로 뜬 매실은 따로 건진다. 농축액을 한 숟가락씩 덜어 찬물에 타서 마신다



매실 고추장 장아찌

- 1 차를 담근 매실은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 매우 쪼글쪼글해진 것을 볼 수 있다.
- 2 조그만 칼로 돌려 깎아 매실의 씨를 뺀다.
- 3 씨를 뺀 매실은 고추장에 버무려 장아찌를 담그는데 매콤한 맛이 여름철 떨어진 입맛을 돋워준다.

송나라에 떨어진 명성, 의천 2





※자료제공 : 저자 김정빈 | 그림 최병용 | 출판사 솔바람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법왕사 소식

■ 5월 단오절 문학의 밤 개최

〈단오절〉을 맞이하여 지난 6월 16일(수요일) 오후 7시, 법왕사 지하 상설전시장에서 제1회 ‘시와 음악이 흐르는 단오절 문학의 밤’ 을 108대 참회 시작과 함께 현대불교 문인협회 대구 경북지회 (회장 정숙) 주최, 법왕불교대학, 우담바라합창단, 풍물예술단 후원으로 정숙시인의 연작시 신 처용가 · 봄날은 간다 · 공연 및 시낭송, 장구와 창, 노래, 음악, 등이 어우러진 흥겨운 무대가 이어졌다. 또한 주지스님께서서는 단오 날은 일 년 중에 가장 밝은 기운이 넘치는 날이기도 하고 옛사람들이 단오에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낸 것처럼, 우리도 풍족한 삶과 건강을 기원하며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 만불보전 불단조성 회향 및 초하루법회

지난 6월12일 법왕사 만불보전에서는 초하루 기도법회를 맞이하여 200여명의 신도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불단조성 회향을 여법하게 봉행되었다. 이날 법왕사에서 법회에 동참한 모든 신도님들의 신심은 날로 증강되며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여 원하는 일들이 모두 원만성취 되리라 믿습니다.



■ 법왕사 제36회 경로잔치

지난 6월 5일 토요일 법왕사 문화관광장에서 「제36회 경로잔치」 가 지역 어르신 천 여분을 모신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실상 주지스님은 ‘백행의 근본인 효’ 를 배우고 실천하는 뜻 깊은 자리이며 오로지 부처님의 정법을 포교하고 소외받는 이웃들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할 따름이라고 인사말씀을 하셨으며 축하공연, 노래자랑 등 다양한 이벤트로 진행된 최고의 야단법석이었다. 또한 법왕사 경로잔치는 이 지역의 노인 분들에게는 매년 기다려지는 한 마당 잔치일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웃어른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봉정암 적멸보궁 순례법회

지난 7월2일 2박 3일 법왕사에서는 여름 설악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적멸보궁 봉정암으로 순례법회를 다녀왔습니다.

■ 초하루 법회 및 문수스님 추모제

지난 7월 12일 초하루에 문수스님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문수스님의 소신공양의 뜻을 잊지 않고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 실상스님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대상 조직위원회대회장으로 추대

지난 7월 21일 우리절 주지이신 실상스님께서 한국청소년 신문사로부터 제7회 대구광역시 청소년 지도자대상 조직위원회 대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 불기 2554년 백중 49재 봉행

불교의 4대명절의 하나인 백중을 맞이하여 500여명의 많은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7일(음 5월 26일) 입재를 봉행하였습니다. 특히 3재 때는 어산범패의 지우스님, 지용스님, 태평소의 심공스님, 최수향 원장을 모시고 바라춤과 살풀이 등을 통해서 모든 영가들이 이승에서의 모든 연을 끊고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재를 지냈습니다. 영가를 위해 기도한 공덕은 자신에게 6/7이 돌아간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이 있듯이 8월 24일 회향하는 백중 49재에 많은 신도님들께서도 동참하시어 유주무주 고향들과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정성껏 발원함으로써 공덕을 닦는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문화강좌 요리교실 개강

지난 6월16일 수요일 오전11시 지하조리실에서 요리교실을 개강하였다. 이날 황미선 선생님은 사찰음식, 약선, 궁중요리 등 일반 가정에서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로 진행해 가겠다고 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야외산신단 특별기도봉행

법왕사에서서는 지난 27일 일요일 가정의 안녕과 무고를 기원하는 산신기도가 야외 산신단에서 산신화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만히 회향하였습니다. 동참하신 사부대중 모두 소원 성취 하시고 이 기도 공덕이 도량의 평안과 불자님 모두에게 가피가 되어 가내 두루 행복하시길 발원 드립니다.

■ 알립니다

- ※ 7 월 4 일부로 경주도굴에서 정진중이시던 무상스님께서 법왕사 선원장 스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불교대학 강사와 토요일 시민참선교실 지도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 ※ 주지스님의 시봉이신 충주 소임보시던 묘도스님께서 7월말로 소임을 그만두시고 법주사 승가대학으로 8/1일부로 입학하셨습니다.
- ※ 주지스님 시봉이신 정명스님께서 수덕사 승가대학을 졸업하시고 8월 1일부로 교무소임을 보시기로 했습니다.
- ※ 7 월 24 일부로 서울에 계시던 지안스님께서 새로이 부전 소임으로 오셨습니다.

■ 백고좌법회 법사스님을 추천바랍니다

저희 법왕사에서서는 8월 27일부터 경유론 삼장 백고좌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법문을 듣고싶으신 신도님께서는 법납30년 이상의 법사스님을 추천바랍니다.

법왕사 게시판

새법우 명단

수성구 정동주 김지원 정찬혁 정아나 정혜린 이성화 최희순 이종희 이호귀 이매희
 이누리 이상원 공진철 황미경 공지석 공현진 박규선 공경춘 김명례
 동 구 이기석 박순자 이호경 이아름 이다운 정종실 박재홍
 기 타 김종우 정복희 김동한 김정은

산신인등 접수 하신 분

234/이경훈	239/이성자	240/김성권	241/김윤상	242/김효진	243/김현철
244/김무건	245/이호진	246/김지연	247/양희천	248/김경일	249/이희일
250/정영미	251/박상원	252/박진훈	253/오경환	254/김정은	255/김동한
256/김종우	257/정복희	258/이수경	259/이경한		

인등접수 하신 분

654/이광호 655/이진호 656/권대원 597/전창진

범종불사 동참 하신 분

장유록 조영무 조영조 김태순 정욱진 조진호 신대기 백영자 조태금 박귀분 이순옥 김귀자
 강소남 시명기 시영기

원불보안 하신 분

3147/유외순(관세음보살)	3148/김의환(문수보살)	3149/이채빈(관세음보살)
3150/김인성(아미타불)	3151/이명자(아미타불)	3152/박수영(관세음보살)
3153/이서현(문수보살)	3154/이승빈(보현보살)	3155/황보인(관세음보살)
3156/김정은(문수보살)	3157/김동한(관세음보살)	3158/박광규(관세음보살)
31859/박범국(보현보살)		

영가등 접수 하신 분

ㄸ박노일 영가 ㄸ박학수 영가 ㄸ경주후인김公호덕

원불 - 완납하신분

3035/김선우(관세음보살)	2971/서대호(아미타불)	3047/이원석(대일여래불)
3048/허정현(관세음보살)	3049/이종유(대일여래불)	3050/석양기(약사여래불)
3051/이명희(약사여래불)	3128/ㄷ여고동(지장보살)	3089/ㄷ이소영(아미타불)
3090/김일수(대일여래불)	3088/정현숙(관세음보살)	3097/홍승규(대일여래불)
3150/김인성(아미타불)	3151/이명자(아미타불)	

평생위패봉안

ㄷ의성후인김국진영가	ㄷ김해후인공삼현영가	ㄷ성산유인배씨귀연영가
ㄷ고령후인박재흥영가	ㄷ경주유인김氏순자영가	ㄷ성산유인이氏소영영가
ㄷ전주유인이氏점태영가	ㄷ밀양후인박공장규영가	ㄷ안동후인김소해복영가
ㄷ순흥후인안공송하영가	ㄷ강릉유인김氏필수영가	ㄷ청도후인김공학종영가
ㄷ김해유인김氏문희영가	ㄷ청도후인김소원명영가	ㄷ신천후인강소래흥영가
ㄷ진주유인강氏진욱영가	ㄷ의성후인김공재수영가	ㄷ의성김공재관
ㄷ밀양후인박공정일		

왕생극락 하옵소서

- **박용근**거사님의 망염부 고령후인 박재흥영가님의 초재가 6월2일에 있었습니다.
- **이석한**거사님의 망자모전 주유인 이점태영가님의 초재가 6월2일에 있었습니다.
- **박종욱**거사님의 망염부 밀양후인 박장규영가님의 초재가 6월19일에 있었습니다.
- **김무건**범우님의 망염부 의성후인 김국진영가님의 막재가 6월22일에 있었습니다.
- **김용태**거사님의 망자모 성산유인 배귀연영가님의 막재가 6월24일에 있었습니다.
- **함형주**거사님의 망자모 경주유인 김순애영가님의 기제사가 7월4일에 있었습니다.
- **김현혁**거사님의 망염부 안동후인 김해복영가님의 초재가 7월4일에 있었습니다.
- **유해정보**살님의 망염부 강릉후인 유영호영가님의 기제사가 7월7일에 있었습니다.
- **정현숙**보살님의 망여식 성산유인 이소영영가님의 막재가 7월7일에 있었습니다.
- **안홍모**거사님의 망자모 강릉유인 김필수영가님의 초재가 7월8일에 있었습니다.
- **박용근**거사님의 망염부 고령후인 박재흥영가님의 막재가 7월14일에 있었습니다.
- **백영배**거사님의 망조모 동래유인 정신전영가님의 기제사가 7월16일에 있었습니다.
- **박종희**거사님의 망염부 밀양후인 박정일영가님의 초재가 7월21일에 있었습니다.
- **정 돈**거사님의 망염부 동래후인 정익균영가님의 사갑재가 7월20일에 있었습니다.
- **박소연**보살님의 망자모 평탄유인 임태경영가님의 기제사가 7월11일에 있었습니다.
- **박진희**보살님의 망자모 밀양유인 손금자영가님의 기제사가 7월22일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보 도움 주신 분
홍분희 백승무
- 백중대중공양 주신 분
서길수 김상한 권혁진 이달희 김상숙 김영희
권혁만 송용순 황동석 이순태 정지훈 박해진
이원석 하정현 양창구 류윤만 심규암 임금실
강병국 윤계한 이세정 김석한 이종순 전미희
이용주 최대일 박준우 백법성행 거시립회
- 초하루대중공양 주신 분
박동근 양창구 김준범 김남두 하경용 노수정
주법등심 우원욱 이조원 박상복 김순태
풍물예술단
- 점안법회대중공양 주신 분
ㄸ이소영 ㄸ여고동 ㄸ오연옥 ㄸ최일용 전병혁
이채빈 조철기 홍승규 홍유식 이종현 정연수
추명석 손동웅
- 공양미 보시하신 분
ㄸ이소영 ㄸ박재흠 최태희 김동한 오진한
- 법공양(부모은중경) 하신 분
정돈 문경주 심혜정 서정혜 조감로연 백법성행
구실상화 백대행심 유명륜행 박경훈 우지형
김우영 송상윤 김동경
- 물품 보시 하신 분
홍유식 김철환 배숙자 송상윤 이지송 박정숙
고은경 백대행심
- 돼지저금통 회향 하신 분
신정훈 류윤만 김호권 배의환 하일등
- 승복 보시 하신 분
김계숙 오경화 오영미 이금자 최명선 이경선
김선유 양지영 최아영 이보민
- 목발우 보시 하신 분
심혜정 최반아원
- 꽃 공양 도움 주신 분
정광춘
- 백중설판제자
이정상 전옥남 이미향

2010년 7월 CMS접수 하신 분

초하루, 축원

정연이 (4만원)이영희 (4만원)나형진 (2만원)
이범우 (2만원)이태현 (2만원)진영덕 (2만원)
이선미 (2만원)송애자 (2만원)전태일 (3만원)
김지연 (2만원)손향숙 (2만원)이선미 (2만원)
송애자 (2만원)전태일 (3만원)나형진 (2만원)
김지연 (2만원)손향숙 (2만원)이태현 (2만원)
진영덕 (2만원)정연이 (4만원)이영희 (4만원)
이범우 (2만원)

인등

황경란 (1만 5천원) 배세종 (1만 5천원)
임상순 (1만원) 김명숙 (3만 5천원)
오창혁 (1만원) 류윤희 (5천원)
신정욱 (4만 5천원) 이숙희 (2만원)
권수정 (5천원) 김숙정 (6만원)
한천숙 (1만원) 최동춘 (1만원)

이숙희 (1만 5천원) 김명선 (2만 5천원)
홍경숙 (1만원) 서금자 (2만 5천원)
김분용 (5만원) 권정수 (1만 5천원)
최미숙 (3만 5천원) 황경란 (1만 5천원)
성상현 (2만원) 강춘희 (2만원)
전재호 (1만원) 이경숙 (5천원)
전수진 (1만원) 노수남 (5만원)
황국희 (2만 5천원) 정순희 (3만원)
이선영 (5천원) 김경란 (12만원)
신인숙 (5천원) 김영희 (2만원)
김경임 (2만 5천원) 신인숙 (5천원)
김영희 (2만원) 권정수 (1만 5천원)
최미숙 (3만 5천원) 최유자 (1만 5천원)
정분식 (5천원) 최유자 (1만 5천원)
정분식 (5천원) 김경임 (2만 5천원)
배세종 (1만 5천원) 강춘희 (2만원)
황경란 (1만 5천원) 최인겸 (1만원)

성상현 (2만원) 김명선 (2만 5천원)
 서금자 (2만 5천원) 김분용 (5만원)
 전재호 (1만원) 이경숙 (5천원)
 이숙희 (1만 5천원) 전수진 (1만원)
 노수남 (5만원) 홍경숙 (1만원)
 황국희 (2만 5천원) 정순희 (2만원)
 이선영 (5천원) 류윤희 (5천원)
 신정옥 (4만 5천원) 오창혁 (1만원)
 이숙희 (2만원) 권수정 (5천원)
 김숙정 (6만원) 최동춘 (1만원)
 한천숙 (1만원)

원불보안

옥선혜 (3만원) 권창훈 (1만원) 홍정순 (3만원)
 민병철 (3만원) 김점숙 (2만원) 강창현 (2만원)
 김금순 (6만 5천원) 이종매 (3만원)
 오지현 (4만원) 김영일 (2만원) 이호진 (1만원)
 양영순 (3만원) 심규암 (5만원) 강승구 (4만원)
 김명숙 (5만원) 유혜정 (2만원) 유해순 (3만원)
 옥선혜 (3만원) 이정훈 (3만원) 차미희 (3만원)
 김명숙 (5만원) 홍순녀 (2만원) 유혜정 (2만원)
 유해순 (3만원) 이정훈 (3만원) 송화중 (3만원)
 김순희 (2만원) 심규암 (5만원) 차미희 (3만원)
 송화중 (3만원) 김점숙 (2만원) 강승구 (4만원)
 민병철 (3만원) 양영순 (3만원) 김순희 (2만원)
 김금순 (4만 5천원) 강창현 (2만원)
 홍순녀 (2만원) 이종매 (3만원) 오지현 (4만원)
 김영일 (2만원) 이재윤 (2만원) 이재윤 (2만원)
 홍정순 (3만원) 권창훈 (1만원)

한평불사

도경식 (2만원) 류옥연 (10만 5천원)
 유명옥 (3만원) 나은숙 (3만원) 정동준 (3만원)
 김의환 (2만원) 신은영 (5만원) 정동준 (3만원)
 손인숙 (5만원) 오형호 (3만원) 서필희 (1만원)
 전복랑 (2만원) 임희경 (2만원) 김의환 (2만원)
 신은영 (5만원) 유명옥 (3만원) 도경식 (2만원)

나은숙 (3만원) 오형호 (3만원) 서필희 (1만원)
 전복랑 (2만원) 임희경 (2만원) 손인숙 (5만원)

평생위패

정광춘(5만원) 정광춘(5만원)

108석등

윤경진 (3만원) 현미숙 (2만원) 조경희 (10만원)
 심명숙 (5만원) 조영자 (6만원) 조규인 (3만원)
 윤경진 (3만원) 이창형 (3만원) 김명술 (3만원)
 사공순옥 (5만원) 사공순옥 (5만원) 문영자 (2만원)
 이정연 (2만원) 문영자 (2만원) 김명술 (3만원)
 이창형 (3만원) 조규인 (3만원) 조영자 (6만원)
 현미숙 (2만원)

삼존불

김양숙 (2만원) 김양숙 (2만원) 황금순 (2만원)
 황금순 (2만원) 김상한 (4만원) 김상한 (4만원)

산신인등

강성연 (2만원)

기타

조전근 (2만원) 주석순 (5천원) 김재현 (1만원)
 민정기 (2만원) 이관수 (12만원) 정영석 (5만원)
 주석순 (5천원) 김재현 (1만원) 이종랑 (5만원)
 정영석 (5만원) 최은상 (3만원) 이관수 (12만원)
 조전근 (2만원) 이종랑 (5만원) 황금석 (7천원)
 손동림 (5천원) 서상태 (2만원) 전광환 (2만원)
 김수정 (1만원) 황미선 (20만원) 김연자 (1만원)
 전광환 (2만원) 김연자 (1만원) 황미선 (20만원)
 김수정 (1만원) 서상태 (2만원) 황미선 (10만원)
 시명권 (10만원) 강옥란 (10만원) 권명자 (10만원)
 남경순 (2만원) 장영숙 (10만원) 채영주 (1만원)
 손동림 (5천원) 김영홍 (15만원) 이혜선 (10만원)
 권홍자 (10만원)

법왕 불교대학 문화강좌

문화강좌에 신도님을 모집 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강좌명	강의시간(매주)	강사	수강료
합창단	(수) 오후 2시	정무시 선생님 (대한불교음악인협회장)	무료
사물놀이	(월, 목) 오후 2시	박성경 단장님 (환경문화예술단회장)	무료
불화그리기	(금) 오전 10시	만허영범스님	5만원
요리교실	(수) 오전 11시	황미선 선생님 (케이블TV 행복한 방상진행)	6만원(재료비 포함)
한문교실	(화) 오후 2시	주지스님	1만원
시인교실	(월) 오전 11시	정숙 선생님 (현대문인협회 대구지회장)	무료
다도교실	(금) 오전 10시	정귀미	
서예교실		유영희 선생님 (경북서예학원장)	
한지공예		김정희 선생님 (한지그림대구분과회장)	

칠월칠석 ~ 백중(우란분절) 9일간 기도정진법회봉행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칠월칠석을 시작으로 백중일까지 9일간 기도정진법회를 봉행하오니 많은 신도님들의 관심과 동참바랍니다.

- 입 재 : 8월 16일(월) / 음 7. 7
- 회 향 : 8월 24일(화) / 음.7.16
- 동참문의 : (053) 766-3747

2011학년도 속계수능 100일기도 봉행

법왕사에서는 2011년도 대입수능 시험을 앞두고 합격기원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입시생 가족들은 지극한 정성으로 불보살님께 기도를 올려 그 동안의 학습노력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축원드려 자녀들이 원하는 목표치가 달성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발원드립니다.

■ 시작하는 날 : 8월 11일 **수요일**

■ 끝나는 날(수능시험일) : 11월 8일 **월요일**

■ 동참금 : 10만원

법왕사 후원 안내

※CMS 후원

- 자동 출금 이체방식(매달 통장에서 약정된 후원금 자동결제)
- 1구좌: 3,000원 이상
- 방 법: 법왕사 방문 및 전화신청

※저금통 후원

불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님의 도량을 여법하게 꾸며야 합니다. 준다는 마음도 없이 받는다는 마음도 없이 내가 기도할 법당을 내손으로 만들겠다는 발원으로 복지판 기도공간을 마련하는데 단 1원을 모으는 정성으로 돼지저금통 불사에 동참합니다.

- 방법: 법왕사방문 저금통을 수령해 채운 뒤 법왕사 복지판 방문전달
- 문의: 766-3742, 766-3747

노인복지요양원 개원

법왕사에서는 노인복지요양원을 오는 8월초 개원예정으로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실 복지사, 요양사, 영양사,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자격 : 법왕사 신도로서 자격증 취득자에 한해 우선 접수받습니다.

■ 문의 : 766-3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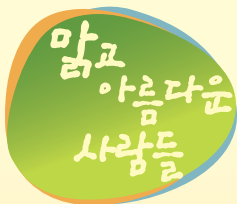
법왕사 제사안내

- 막재, 사갑제사, 대천도재 : 각 100만원. 150만원
- 초재, 이장(1구좌), 백일제사, 소천도재 : 각 50만원
- 생일제사, 기제사, 고불례(고사), 안택기도, 임종염불 : 각 30만원
- 49재 : 35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각 재일별 기도 내용

신중기도 / 매월 음력 초하루 ~ 초사흘 / 신축법당 3층
 원불기도 / 매월 음력 8일 / 본당 1층 삼천불전
 신장기도 / 매월 음력 10일 / 3층
 인등기도 / 매월 음력 15일 / 3층
 산신기도 / 매월 음력 16일 / 야외산신단 오후 3시
 지장재일 / 매월 음력 18일 / 3층
 관음재일 / 매월 음력 24일 / 3층
 다라니기도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반 / 3층
 거사림법회 / 매주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7시 / 3층
 어린이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 3층



1만5천부를 발행하는 《맑고 아름다운사람들》은 광고효과와 열독률이 높습니다. 법우여러분께서 협찬하시는 광고는 제작비에 충당되며 더 좋은 소식지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오니, 사업장을 열고 계시는 법왕법우님들이 많이 동참하시어 법왕사보의 발전에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문의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법보시 받습니다.

사보구독

(신청^변경^취소)

문의: 053) 766-3742
 766-3747

법보시계좌 (무통장입금) 예금주: 법왕사

C M S 039-10-001382

지로번호 3054150

대구은행 047-05-003698-6

농협 702010-51-106490

백중(우란분절) 49재 안내

무릇 아들 딸들이여,
부모의 은공은 꼭 갚아야 하고, 부모의 은공을
갚으려면 나 자신이 착하게 달라져야 하고, 내가 달라지면 부모는
왕생하고, 부모가 왕생하면 참된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법왕사에서는 경인년 백중(우란분절)을 맞이하여 49일 동안 천도재를 봉행드립니다.

유주무주 고향들과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진행되는 49일 천도재에 신도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일 정

- 4 재 - 8월 3일 (음 6월 23일) 화요일
- 5 재 - 8월 10일 (음 7월 1일) 화요일
- 6 재 - 8월 17일 (음 7월 8일) 화요일
- 회향 - 8월 24일 (음 7월 15일) 화요일

동참 내용

- 동참금 - 49일 기도 (가족당 3만원)
49일 천도재 (영가 1위당 5천원)
망축 (10만원)

문의접수: 법왕사 종무소 766-3747

※매 재마다 재물(과일, 떡등)을 공양 하실 분은 종무소에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제 21회

경·율·론(經律論) 백고좌대법회 삼 장(三藏)

경전의 왕이라 불리우는 ‘묘법연화경’을 우리는 법화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묘법연화경이란 말 그대로 진흙 속에서 더욱 빛나고 그 고귀한 모습으로 늘 그렇게 피어 있는 흰 연꽃처럼, 더없이 아름다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바른 이해의 가르침입니다.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누구나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법화경을 100일간 100분의 고승대덕을 모시고 높은 법문은 들을 수 있는 이번 백고좌대법회에 두루 동참하시어 부처님 깨달음의 참정신을 배우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위분들에게도 권하여 함께 부처님의 품안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발원드립니다.

- 일 시 : 2010년 8월 27일 ~ 12월 9일(100일간) 오전 11시 30분(법문)
- 장 소 : 법왕사 신축법당 3층
- 증 명 : 조계종 대종사 무진장 큰스님, 불심 도문 큰스님, 정무 큰스님
- 문 의 : 법왕사 766-3747

*동참 신행단체, 숙식제공 가능, 사전 예약, 접수 바랍니다.



정무스님

1일차_ 8월 27일
조계종 대종사



지안스님

2일차_ 8월 28일
은해사/승가대학원장



인한스님

3일차_ 8월 29일
경국사 회주



혜경스님

4일차_ 8월 30일
화담정사조실



활안스님

5일차_ 8월 31일
(사)한국불교금강선원총재



종연스님

6일차_ 9월 1일
수미정사 주지



암도스님

7일차_ 9월 2일
마하무량사 회주



도오스님

8일차_ 9월 3일
한중불교연구원장



덕신스님

9일차_ 9월 4일
대륜사 주지



반산스님

10일차_ 9월 5일
원각사 주지



종진스님

100차 보살계 수계법회
해인사 을주

